“준비한 것 잊었다” 즉석법문, 대중들 박수

조계종 제15대 종정 추대 법회 이모저모

간결 · 쉬운 취임법어 ‘눈길’
‘無遮의 리더십’ 세간 주목
대통령 추대법회 참석 처음
BBS · BTN, 유튜브 생중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은 3월 30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제15대 종정예하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3월 30일 조계사에서 열린 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하 추대법회가 성료했다. 10년 만에 새로운 종정을 모시는 자리인 만큼 여법하게 봉행됐으며, 법회를 통해 중봉성파 대종사는 조계종 종정예하로 공식 추대됐다.

즉석법문에 대중들 박수 갈채

이날 법회에서 가장 기대를 모았던 것은 새로운 종정 스님의 취임법어였다. 성파 종정예하의 법어는 법회를 앞두고 공개됐고, 행사 자료집에도 그대로 실렸다. 이 법어는 새 종정예하의 육성으로 발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불자와 법장을 봉정받은 성파 대종사는 “특별한 법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통도사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싹 다 잊어버렸다”며 즉석에서 법어를 설했다. 대종사의 법어는 여지껏 알고 있는 큰스님들의 법어와는 달랐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조사 어록과 공안들을 인용하지 않았고, 일상적 언어로 간결하고 쉽게 법을 전했다.

대종사는 법어에서 ‘호국불교’와 ‘초발심’을 화두로 꺼냈다. 호국불교는 총과 칼을 드는 게 아닌 ‘이 시대 불교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화두였다. ‘초발심’은 ‘새롭게 시작하자’는 대종사의 당부였다.

대종사의 법어에 대중들은 세 차례에 걸쳐 박수로 호응했다. 특히 “봄이와 꽃을 피웠지만 인간들의 마음은 왜 꽃을 못 피우는지. 이 세계의 얼어붙은 마음들을 따스하게 화합하는 기분으로 굴려서 웃음꽃이 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불자의 임무와 책임”, “초발심으로 돌아가자. 이때까지 있던 것들을 싹 지워버리고 새로 전부 출발하면 전부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법어에 대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편안하게 이야기하듯 전한 법어에 세간은 중봉성파 대종사의 ‘부드러운 리더십’에 주목하고 있다. 근엄하고 다가서기 어려운 큰스님이 아닌 누구에게나 열린 ‘무차(無遮)의 선지식’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대통령 참석 최초…엄중 경호

이날 추대법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참석했다. 종정예하 추대법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문 대통령은 추대 법회에 앞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성파 종정예하, 총무원장 원행 스님,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불교계 최고 어른인 종정예하 추대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기를 기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정 예하께서 불교계의 화합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대통합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직에서 퇴임하면 통도사 옆으로 가게 되어 가까운 이웃이 되는데 자주 찾아뵙고 가르침을 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성파 종정예하는 ‘백리 길을 가는 사람은 구십 리를 반으로 여기며, 남은 십 리가 중요하다’는 뜻의 ‘행백리자반구십리(行百里子半九十里)’를 강조하며, “문 대통령이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종교계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내외가 직접 조계사 법회에 참석한 만큼, 검문검색이 강화됐다. 스님과 신도, 취재진들이 법회 장소로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생중계 · 영상 메시지 ‘눈길’

법회 중에는 여야 대표부터 정각회장,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각계각층의 영상 축하메시지가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중봉성파 대종사께서는 이판과 사판을 넘나드는 대자유인이자 자애로운 스승”이라고 찬탄했으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처님의 크신 자비심과 중봉 성파 대종사의 깊은 공덕으로 대한민국을 더욱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깃들어있는 불성을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화합의 불국토가 이 땅에 현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은석초등학교 · 동대부중 · 동대부고 · 동대부여고 학생들의 메시지도 이어졌다. 이들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불교를 만들어주세요”, “세상을 비추는 소중한 불자가 되겠습니다”라며 성파 종정예하 추대를 축하했다.

BBS불교방송과 BTN불교TV에서는 추대법회 현장을 생중계했다. 두 방송국 모두 유튜브를 통해서도 법회 현장을 전했으며, 1만 4~6000여 명이 시청하며 종정 추대를 축하했다. 시청자들은 채팅을 통해 축하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禪農 · 禪藝一致 보인 선지식
전통계승 통한 ‘문화호국’ 강조

중봉성파 종정예하는



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는 선농일치(禪農一致) · 선예일치(禪藝一致)를 보여준 선지식이다.

1960년 10월 15일 통도사 노천 월하 화상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고, 1970년 4월 7일 구족계를 수지했다. 1971년 1월 15일 통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며 당시 통도사 강주인 운조 홍법 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전수받았고 이후 통도사 강주를 역임했다.

1998년 봉암사 태고선원 수선안거 이래 상원사 청량선원을 거쳐 2000년 4월에 통도사 서운암에 무위선원을 열고 총 26안거를 성만했다. 2002년 2월 당시 영축총림 방장 노천월하 대종사로부터 ‘人人各持自燈火 豈待日月尋前路’의 전법게 및 ‘중봉(中峰)’이라는 법호를 함께 받았다.

중봉성파 대종사는 교육 및 문화활동에 꾸준히 힘을 기울여 왔다. 1980년 2월 당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던 학교법인 원효학원 해동 중고등학교의 이사장을 역임했다. 1988년 5월 원효학원이 범어사와 분립되자 학교법인 영축학원을 설립해 38년 간 종립학교 발전에 이바지했다. 성파 시조문학상 및 전국 시조백일장을 제정하여 한국 시조문학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영축전통문화연구원 및 한국전통문화연구원을 설립해 통도사 및 한국문화발전에도 기여했다.

조계종 사회부장, 교무부장, 규정부장으로서 종단 발전에도 일임을 담당했으며, 1981년 3월에는 통도사 제20대 주지로 취임해 불교계 최초로 성보박물관을 건립하기도 했다. 통도사 주지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모든 소임을 내려놓고 통도사 서운암 감원으로 주석하며 수행에만 온전히 매진했다.

2000년 4월 서운암에 무위선원을 개원한 이후에는 선농일치 정신을 선양하며 사라져 가던 통도사 차밭을 재건하고 황무지에 야생초 및 감나무 밭을 일궜다.

사찰이 지닌 고유한 문화와 예술을 발굴하고 이를 선의 정신과 접목한 선예일치를 추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겸전(兼全)했다. 1991년부터 2012년 4월까지 21년에 걸쳐 도자판을 구워 제작한 16만 도자대장경을 조성하고 장경각을 건립하여 불사한 대장경을 모셨으며, 천연염색 및 새로운 옻칠기법을 개발해 사찰단청과 건축, 도자기 및 그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에 적용시키기도 했다. 대종사는 전통문화 계승과 보존에 기여한 공로로 2017년에는 국가로부터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대종사는 평소 ‘문화호국’을 강조해 왔다. “민족문화를 보존하고 새롭게 창달하는 ‘문화호국’이 돼야만 진정 나라를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대종사는 2013년 4월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추대됐으며 2014년 1월 조계종 최고품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2018년 영축총림 제4대 방장에 추대됐으며, 2021년 12월 13일 조계종 원로회의서 만장일치로 조계종 제15대 종정으로 추대됐다.

“상불경 보살정신·善心 강조한 가르침 따라 화합 사회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 축하 메시지



오늘, 중봉성파 대종사께서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으로 추대되셨습니다. 두 손 모아 축하드립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봄, 조계사 곳곳에 봉축 도량등의 물결이 넘실대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는 대승의 보살정신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신 불자 여러분과 내외 귀빈들께 감사드리며,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원로 고승대덕 스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저는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종정 예하를 여러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큰 가르침을 받았고, 정신을 각성시키는 맑고 향기로운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철마다 들꽃이 만발하고, 수천 개의 장독마다 역사와 전통이 담겨있던 서운암도 눈에 선합니다.

부처님은 행동과 지혜는 수레의 두 바퀴, 새의 두 날개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정예하께서는 일과 수행, 삶과 예술, 자연과 문화가 결코 둘이 아니라는 선농일치를 실천하셨습니다.

우리 산야의 햇살과 바람으로 전통장을 담그셨고, 우리 흙으로 도자삼천불과 통일을 염원하는 16만 도자대장경을 빚어내셨습니다.

30여 종의 우리 꽃과 식물로 천연염색을 복원하고, 옻칠기법을 개발해 불화와 민화를 새롭게 그리셨습니다. 이 모두가 불교문화와 전통문화의 정수이자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불교문화와 정신문화를 길러온 종정 예하의 선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큽니다. 종정 예하와 조계종이 품어온 정신과 예술의 향기가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불교는 긴 세월 민족의 삶과 함께 해왔습니다. 불교가 실천해온 자비와 상생의 정신은 우리 국민의 심성에 녹아 이웃을 생각하고 자연을 아끼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불교는 코로나 유행 속에서도 동체대비의 정신을 실천하며 국민들께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연등회를 취소하는 고귀한 용단을 내렸고, 아낌없는 기부와 나눔, 봉사로 지친 국민과 의료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국민들 역시 이웃을 생각하며 자신의 일상을 양보했고, 모두의 자유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감내했습니다. 지금의 고난을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계신 국민들께 불교가 변함없는 용기와 힘을 주리라 믿습니다.

종정 예하께서는 모두를 차별 없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불경 보살’의 정신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가르침대로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종정 예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덕화로 道業 넘칠 것”

추대사 수봉 세민 대종사



오늘 이 자리는 종단의 법통을 계승하고 최고의 권위와 존엄을 갖춘 새 종정예하를 모시는 자리입니다. 대방무외(大方無外)한 선지(禪旨)와 대기대용(大機大用)을 갖춘 성파 대종사를 새 종정으로 모시어 추대식을 갖는 성스러운 법석입니다.

오랫동안 영취산 통도사에 머물면서 일념정진으로 내심자증(內心自證)을 이루어 번뇌를 보리의 대용으로 바꾸고 허철영적(虛徹靈寂)한 마음 바탕에서 무생의 면목을 깨닫고 인천(人天)의 안목을 연 눈밝은 선지식입니다.

수행가풍은 육조혜능의 현의(玄義)를 구현하고 임제선풍을 진작하며 백장청규를 실천하면서 일상생활을 통해 선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루일과는 화두참구와 예술창작으로 이어지고 자기명근(自己命根)을 밝히는 정진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속에 팔만대장경을 도자기에 새겨 원만성취하여 대장각에 모신 원력보살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라에 눈 밝은 이가 있으면 그 나라는 윤택해지고 집안에 선(善)이 있으면 그 가문이 비옥해진다고 했습니다.

성파 종정시대를 맞아 종단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으로 또 한 번의 중흥을 이룩해야 할 것이며, 종정예하의 덕화로 불일(佛日)은 더욱 밝아지고 곳곳에서 도업(道業)이 넘칠 것입니다.

사부대중과 함께 진심으로 경하(敬賀)드립니다.

“종정예하 원력따라 문화수호”

봉행사 총무원장 원행 스님



오늘 종도들은 종단의 최고 어른이신 종정 예하를 새롭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교단의 자존과 도약의 소중한 전기를 맞이하는 참으로 경사스럽고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신수봉행(信受奉行)을 서원하는 모두는 말과 행을 함께하는 수행과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정신을 실현해오신 종정 예하의 덕화를 본받아 진일보할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갈등과 대립 그리고 위기로 물들어 있습니다. 전쟁의 참화가 재현되고, 인류를 위협하는 감염병이 창궐하여 삶은 피폐해지고 평온한 일상의 즐거움도 찾기 어렵습니다. 오롯이 인간의 이기심이 빚어낸 참극입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 성냄과 증오심 그리고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중생들의 번뇌를 온전히 끊어내어야 합니다. 늘 올바른 규율로 지계는 청정해야하고 화합을 통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종정 예하의 교시는 모든 중생의 진안을 밝히는 지남입니다.

중생 교화에 더욱 큰 발원이 있으신 종정 예하의 원력에 따라 종단은 전통문화를 수호하고 나아가 전법 교화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불교가 세상에 나아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종단의 막중한 책무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이에 사부대중은 일심일념으로 삼보를 호지하고 올바른 공동체를 위해 정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종정 예하의 정진력과 지혜의 덕화를 호지하여 무량한 등불로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다함께 정진합시다.

“종정 교시 실천하겠습니다”

헌사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를 추대하는 이 거룩한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부대중은 무장무애(無障無碍)하고 환희원만(歡喜圓滿)하여 종정예하께서 내려주신 교시(敎示)를 따라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常要淸規, 必須和睦, 普利群生, 爲報佛恩 항상 청규를 따르고 반드시 화목함을 지켜서 뭇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하고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큰 서원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종정예하께서는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전염병보다 더한 마음의 병으로 많은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우리 한국불교의 나아갈 방향을 일러 주셨습니다. 스승께서는 이미 한평생 수행과 문화, 생명살림과 화합의 길을 온 몸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부대중 모두는 한사람의 수행자, 한사람의 원력보살이 되어 대자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이 거룩한 법석에 함께 한 공덕으로 우리 동참 대중은 보현의 행원을 오롯이 성취해 낼 것입니다.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온 중생을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내려는 이 정진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불국토 만드는 주인공될 것”

헌사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거룩하신 부처님과 크고 밝은 지혜의 가르침과 수행종가를 이끌고 계신 승가에 귀의합니다.

오늘 우리 사부대중은 하늘이 열리고 땅이 일어나 함께 춤추는 기쁜 법석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님을 모시는 즐거운 축제의 장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화엄경을 인용하시어 “심여공화사(心如工畵師)하니 능화제세간(能畵諸世間)이라하셨습니다.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붓과 같아서 능히 모든 세간을 그려낸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가르침을 접하고 어느 정도의 신심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불교조계종의 신도대중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긍정적 안목으로 부처님과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생명과 평화, 문화와 전통을 일구는 원력보살로 살아 저희들의 공업으로 세상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불국토를 만들어 가는 주인공은 바로, 자비를 실천하는 저희들임을 굳게 새겨 정진해 나가겠습니다.